



복음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sup>1</sup> 말씀하셨다.  
<sup>2</sup>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sup>3</sup>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sup>4</sup>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sup>5</sup>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sup>6</sup>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sup>7</sup>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sup>8</sup>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sup>9</sup>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sup>10</sup>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sup>11</sup>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sup>12</sup>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sup>13</sup>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sup>14</sup>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Jesus again in reply spoke to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of the people in parables,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likened to a king who gave a wedding feast for his son.  
 He dispatched his servants to summon the invited guests to the feast, but they refused to come.  
 A second time he sent other servants, saying,  
 ‘Tell those invited: Behold, I have prepared my banquet, my calves and fattened cattle are kill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feast.’  
 Some ignored the invitation and went away, one to his farm, another to his business.  
 The rest laid hold of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The king was enraged and sent his troops,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y.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feast is ready, but those who were invited were not worthy to come. Go out, therefore, into the main roads and invite to the feast whomever you find.’  
 The servants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gathered all they found, bad and good alike,  
 and the hall was filled with guests.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meet the guests, he saw a man there not dressed in a wedding garment.  
 The king said to him, ‘My friend, how is it that you came in here without a wedding garment?’  
 But he was reduced to silence.  
 Then the king said to his attendants, ‘Bind his hands and feet, and cast him into the darkness outside, where there will be wailing and grinding of teeth.’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성경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잔치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늘 나라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이 함께 초대받아 어우러질 기쁨의 잔치이고, 구약에서부터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고대하시고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나라에 먼저 초대받았으나, 그것이 그 자리에 대한 보증 수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내신 새로운 백성, 곧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음으로써 세계의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도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점점 발전되어 가는 세상 안에서 교회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정의와 자유와 해방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아 큰 역할을 수행할 하느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복장 준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여들 많은 백성들을 안내할 책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지만, 하느님의 이 의지는 인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하늘에서 번쩍 비추는 번갯불처럼 내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

인간 세상 예복과 다른 의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서 대로 잔치에 불리오라고 명령했다.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혼인잔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발견했다. 임금은 하인들에게 그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게 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대목이다(마태 22,1-14).



혼인 잔치의 초대, 김옥순 수녀 작

**혼인 예복은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회개**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 우리는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 갈 때, 그에 어울리는 예복을 차려 입는다. 하느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그에 걸맞은 예복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치러지는 동안 새 신랑과 신부는 물론 가족,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까지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풍습이 있었다(마태 22,12 참조).

유대인들 혼인잔치는 가족과 친인척, 마을 사람들, 지인들, 심지어 행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큰 축제와 같았다. 혼인잔치는 일주일이나 치러졌으며, 잔치 내내 연회, 노래, 춤 등이 이어졌다.

혼인을 치르는 신부는 아름다운 여왕처럼 몸치장을 했다. 신부는 목욕을 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보석을 빌려 머리를 장식했다.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 베일은 혼인을 치르는 장내에 들어갈 때까지 벗을 수 없었다. 새 신랑과 신부가 혼인서약을 한 후, 남편과 아내가 됐음을 선언 받은 뒤에야 비로소 베일을 걷을 수 있었다.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결혼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증인 역할을 했다(창세 29,22).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에서 혼인 예복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애로, 혼인 예복은 세례 자체라기보다는 **깨끗한 마음과 흠 없는 양심,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혼인 예복을 **믿음의 세례**라고 했다. 거룩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혼인 예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했다. 이는 창조주께서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기 위해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지니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에서 혼인 예복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회개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언급한 결혼 예복은 인간 세상의 예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에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허영엽 신부의 성경 속 금금증, 평화신문)

### 프란치스코 교황

## 온라인으로 번지는 아동 성학대 막아야 - ‘아동 존엄’ 국제회의에서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6일 ‘디지털 세계에서 아동 존엄’ 을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최근 교회는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는 하느님과 피해자, 대중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몇몇 교회의 성직자들이 아동을 성추행한 ‘쓰라린 경험’ 과 ‘회심과 정화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 의 결과로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 세계에 걸쳐 아동과 이들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황은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르노의 확산을 경계했다.

교황은 “인터넷의 어두운 면, ‘다크 넷’(dark net)에서 악령이 새롭고 효과적이며 설득력 있게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거대하고 전 세계적이며, 그 누구도 아동과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해악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산하 아동보호센터와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적 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위프로텍트 세계연맹(WePROTECT Global Alliance) 공동 주관으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레고리오대에서 열렸다.

# Catholic Month of October : Holy Rosary



The month of the Holy Rosary is October and this entire month is dedicated to the Rosary. The feast day of the Holy Rosary in particular is October 7th. The feast of the Rosary is held on October 7th in memory of the glorious and triumphant battle was the most convincing military victory that proved without a doubt the great power of the Rosary.

The month of October is a good time to commit to praying the Rosary everyday. The Rosary will bring great peace and holiness to your life. It is a powerful instrument for conversion. The Rosary is the best method of honoring Mary.

## Prayer of the Month

### Prayer of St. Louis de Montfort

*O Jesus living in Mary, come and live in Your servants, in the spirit of Your holiness, in the fullness of Your might, in the perfection of Your ways, in the truth of Your virtues, in the communion of Your mysteries.*

*Subdue every hostile power, the devil, the world and the flesh, in the strength of Your Spirit, for the glory of Your Father*

*Amen.*

## How to Pray a Family Rosary

### • Personalize it

Each family member should have their own Rosary. Children may play with it. Girls may wear it as a necklace. Boys will try to use it as a lasso. That's fine. It helps them become familiar with a Rosary. Eventually they will learn and grow in reverence for their Rosary.

### • Create a habit

Set a time that is comfortable for your family and that works without adding stress. When it doesn't happen, don't give up entirely, just pick it up again the next day.

### • Create a space

Set the tone for prayer so young children understand this is different than other family activities. If possible, light a candle and play some soft, background, instrumental music.

### • Start small

Be patient. Don't try to complete an entire Rosary the first time you gather together in prayer, particularly if you have young children. Start with a decade and build over time.

### • Keep it simple

The Rosary is a great way for young children to learn the Hail Mary, Our Father and Apostle's Creed and to learn about the lives of Jesus and his Mother 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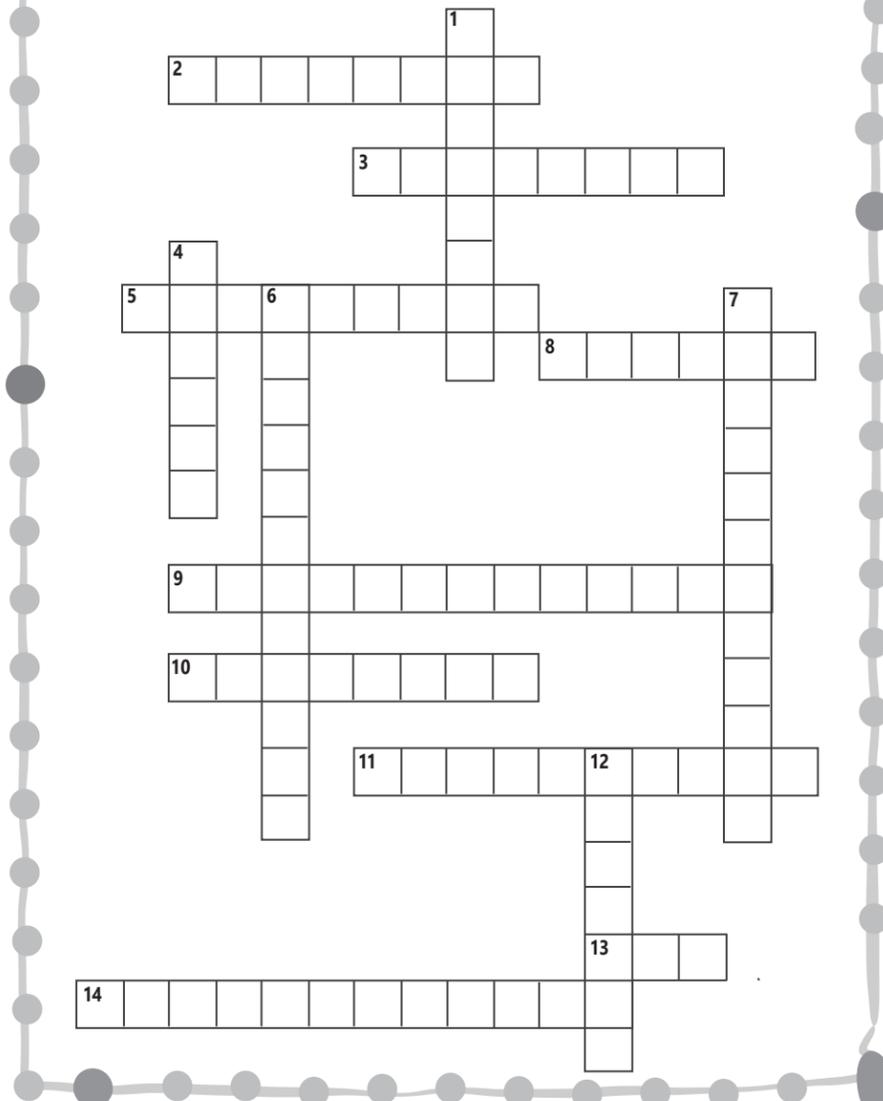
### • Involve all family members

If children have a role, they will participate more fully and be more attentive. Let them lead a reflection or the prayers depending on their age.

### • Just start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and no place like home.

## Holy Rosary Crossword Puzz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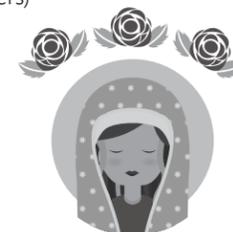
Rosary, Joyful, Luminous, Sorrowful, Glorious, Hail Mary, Nativity, Pendant, The Holy Spirit, Resurrection, Annunciation, Ave, Assumption, Presentation

### ACROSS

2. Said on Saturdays
3. Most frequent prayer
5. Said on Tuesdays
8. A crown of roses
9. Descent of...
10. Third Joyful Mystery
11. The mystery of the Rosary that was pronounced a dogma in 1950
13. The first word of the Angel Gabriel to our Lady in the first mystery of the Rosary in Latin
14. The mystery of the Rosary on earth, where Mary is the only human being present (12 letters)

### DOWN

1. Introduced by Pope John Paul II
4. Said on Mondays
6. The mystery of the Rosary that has the guards terrified
7. The mystery of the Rosary where our Lady receives painful news about the future (12 letters)
12. Begin with...



Bishop Burbidge invites all teens of the Diocese to join him at RALLY 2017!

- WHEN** Sunday, Oct.22, 2017. 12:00pm-8:00pm
-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6600 Little Falls Rd, Arlington, VA 22213)
- COST** Our parish will fully fund the cost for all participants.

## ANNOUNCEMENT

- 1. First Communion Registration Service**
  - **When :** 10/22-11/12 (Sundays), 9:30am-1:30pm
  - **Where :** Hasang Building Lobby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to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or contact [Yunchong Boyle](mailto:Yunchong.Boyle) at (703) 371-3589
- 2. Join SPC Student Liturgy Team**
  - **Candidates :** 6<sup>th</sup> - 12<sup>th</sup> student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SPC Sunday School
  - **Application :** October 8 - October 29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John Seok](mailto:John.Seok) at (703) 581-3719 or [aranghyunbin@gmail.com](mailto:aranghyunbin@gmail.com)
- 3. Jr. High Activity**
  - **Who :** All students from grades 6 to 8 are welcome!
  - **Theme :** All Saints' Day Party
  - **When :** Oct. 28(Sat), 4pm-7pm
  - **Where :** Parish Hall
  - **Fee :** \$5 per participant
- 4. Student Confirmation Schedule**
  - **Interview with Fr. Bang :** Oct. 25(Wed) at 8pm
  - **Confession :** Oct. 28(Sat) at 10am
  - **Rehearsal :** Oct. 29(Sun) at 1pm (Sponsors are required to attend)
  - **Confirmation Mass :** Oct. 30(Mon) at 7:30pm
- 5. Sunday School Open House**
  - Oct. 29(Sun) from 10am - 11:15am

## Praying with your 5 Fingers

by Pope Francis

**THE THUMB**  
For the ones we love- Family and Friends

Start praying for those who are closest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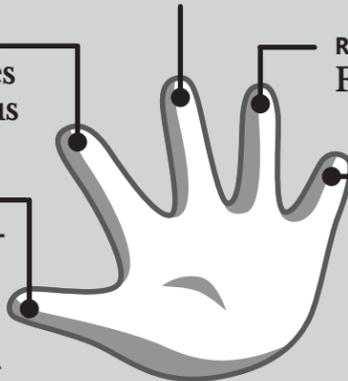
**INDEX FINGER**  
For the ones that teach us

**MIDDLE FINGER**  
For our leaders & the governors

**RING FINGER**  
For the sick and Weakest

**THE PINKY**  
Pray for yourself

This should remind you to pray for your own needs when you are done praying for the other four groups.



## 지극한 환희 데레사의 법열

로마 북서쪽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Chiesa di Santa Maria della Vittoria)은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Giovanni Lorenzo Bernini, 1598-1680)의 제단 조각작품 ‘**데레사의 법열** The Ecstasy of Saint Teresa’로 유명세를 타는 관광 명소이다. 페데리코 코르나로(Federico Cornaro 1579-1653) 추기경은 평범한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에 소속된 이 교회를 자신과 가족의 장례성당으로 선택해 왼쪽 익랑을 개조하였다. 추기경은 당대를 선도하는 예술가 베르니니에게 기존의 작품 ‘성 바오로의 법열’ 대신에, 시성되기 이전이었지만 수도회를 설립한 스페인 **아빌라의 데레사(Theresa of Avila 1515-1582) 수녀**와 관련된 이미지와 전체적인 장식을 의뢰했다. 베르니니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성녀의 자서전 ‘천주 자비의 글’에 기록된 신비로운 꿈을 주제로 선택했다. 관람객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는 데레사 성녀의 환시를 입체적으로 조각한 제단에서 당대 가톨릭이 반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장려하였던 성인의 신비한 체험을 감상한다.

베르니니는 성녀의 꿈속 에피소드, ‘아름다운 천사의 불꽃은 황금빛 화살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통의 전율은 극한의 희열이자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 이었다는 환시의 경험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는 르네상스의 고전적 장엄과 매너리즘의 기교에 순응한 에너지로 바로크의 극적 리얼리즘과 과장된 감동을 정교하고 세련된 기술, 세부적 묘사로 생동감 넘치는 최고의 걸작을 창조했다. 성령의 비둘기를 은유한, 햇살처럼 펼쳐진 가는 금색 도금막대는 경당 뒤편의 숨겨진 창문의 자연광과 어우러져, 화살을 든 천사와 황홀경에 취해가는 성녀의 흰색 대리석에 반사되어 경이롭고 다채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천사의 왼손은 살며시 데레사의 가슴 앞자락을 들치고 오른손에 쥔 화살의 시위는 성녀의 심장을 과녁으로 겨눈다. 관람객은 신성이 지상의 육신을 침범하는 순간 구름을 타고 성령의 금빛 줄기를 따라 하늘로 오르는 성녀의 감각적이고 강렬한 법열의 환희에 함께 도취한다.

베르니니는 내러티브가 극적으로 고조된 절정의 순간 정지된 성녀의 몸부림을 하느님의 사랑이자 극도의 엑스터시 경지로 비유해 서사적 긴장감을 부여한다. 달콤한 미소의 천사는 고통과 환희라는 신의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선물을 주기 위해 다가오고 무아의 경지에 취해 탄식의 숨을 뱉는 데레사의 황홀경은 바로크 천재의 직관적 독창적 예술이다. 성녀의 종교적 법열은 물질과 영혼 그리고 지상과 천상의 신비한 접촉점으로 묘사되었지만, 반면에 지나친 예술적 상상력으로 극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관능성을 강조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대리석에 새겨진 물결치듯 흐르는 유연한 천사의 옷과 대비되는 심하게 구겨진 성녀의 베일과 옷자락은 고통 속 절정에 오른 격한 몸짓과 내면적 동요를 대변하는 감동적인 영적 폭발의 메타포이다. 관람객은 양 옆 벽면 4명의 고부조로 새겨진 코르나로 가문의 실제 후원자 초상 조각과 함께 이 신비로운 극치의 장면을 지켜보는 목격자이자 영원한 증인이다.

6명의 교황이 후원한, 로마를 위해 태어난 예술가 베르니니는 건축 프레스코 스투코 조명으로 전체를 장식한 경당에, 영성이 뛰어난 위대한 개혁가 대 데레사 성녀의 영적 체험을 구현한 작품을 봉헌한다. 16세기 가톨릭이 루터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하고



데레사의 법열(The Ecstasy of Saint Teresa), 1647-52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 대리석 350cm

분열이 확산될 때, 십자가의 성 요한과 함께 엄격한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와 ‘예수회’를 창설해 쇠신과 개혁을 단행한 맨발의 성녀는 베르니니의 손에서 극적인 생명력을 부여받아 명작으로 탄생했다. 심장이 꿰뚫리는 육체적 고통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법열의 차원에 오른 성녀의 관상은 완덕의 단계에 이르며 ‘영혼의 성’ ‘천주 자비의 글’ ‘완덕의 길’ 등의 위대한 영성 고전 문학을 남겼다. 관람객은 하느님과의 사랑과 교감으로 생성된 성녀의 지극한 환희의 표정에 감동하고, 도드라진 맨발에서 관습과 명성을 버리고 물질·세속적 욕망과 단절해 고행한 실천적 삶을 확인한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1614년 교황 바오로 5세(Paulus V)에 의해 시복되었고, 162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0년에 첫 여성 교회학자로 선포해 ‘예수의 성녀 데레사’로도 불린다. 성녀의 축일은 10월 15일이다.



<이순희 아네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1 하상회 모임**

• 일시: 10월 15일(일) 오전 11:30 (B-3,4)

**2 안나회 모임**

• 일시: 10월 15일(일) 오전 11:30 (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0월 15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4 주일학교 PTO 학부모 전체회의**

• 일시: 10월 15일(일) 오전 11:30 (B-1,2)  
 • 2017 - 2018년도 주일학교 PTO 전체 회의에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 세실리아 (703)606-7376

**5 베드로회 모임**

• 일시: 10월 15일(일) 오후 1시, 나눔터

**6 제4기 성마리아 어머니 학교**

• 주제: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자녀를 둔 모든 어머니 (나이 관계 없음)  
 • 행사 일정: 10월 28(토)-29일 (일) 1박 2일  
 • 참가 신청: 친교실, 선착순 40명  
 • 장소: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 문의: 최아델라 (703)470-1220, 김베로니카 (703)864-1236

**7 레지오 마리아에 가두선교단 발대식**

• 일시: 10월 29일(일) 오전 11:30 (B-3,4)

**8 알링턴 교구 청소년 신앙 대회**

•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12시 - 8시  
 • 대상: CYO (9 - 12학년)  
 • 접수 기간: 10월 15일(일)까지  
 • 문의: CYO 교사 또는 이희준 아오스딩(703)627-0799

**9 유야세례**

•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3시, 성당  
 • 신청: 10월 20일(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요한회 성지순례**

• 일시: 10월 22일(일) 오전 9시 출발  
 • 장소: 16330 Grotto Rd. Emmitsburg, MD 21727  
 • 문의: 배석범 (703)477-3491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15일(일)	연중 제28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베드로회(오후 1시, 나눔터),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성서통독반(오전 11:50), 평화신문 홍보
16일(월)	연중 제28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7일(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령기도회(오후 8시), 바오로 기회부 모임(오후 8시)
18일(수)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9일(목)	성 요한 드 브레비엥, 성 이사악 조그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0일(금)	연중 제28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사도임원회의(오후 8시)
21일(토)	연중 제28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성소후원회 모임(오후 12시, 친교실)
22일(일)	전교주일	유야세례 (오후 3시, 성당), 미사독서 해설자 모임(오전 8:00), K of C 모임(오전 11:30, A-1,2), 성서통독반(오전 11:50), 요한회 성지순례(오전 9시 출발, 에미츠버그),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11 K of C 모임**

• 일시: 10월 22일(일) 오전 11:30 (A-1,2)

**12 복사단 모임**

• 일시: 10월 22일(일) 오후 12:40 (B-1,2)

**13 울드레아 정기 모임**

• 일시: 10월 27일(금) 오후 8시 (A-1,2,3)  
 • 문의: 광노덕 도미니코 (703)608-9664

**14 성소후원회 복사단 점심 초대**

• 미사 전례에 봉사하는 복사단 학생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성소후원회에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자리에 복사단 학생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0월 29일(일) 오후 12:45 (나눔터)  
 • 대상: 복사단 학생과 졸업생  
 • 문의: 김만식 재권요셉 (703)403-1185

**15 2017년 학생 견진성사 일정**

• 신부님 인터뷰: 10월 25일(수) 오후 8시(하상관)  
 • 고백 성사: 10월 28일(토) 오전 10시 (성당)  
 • 예행 연습: 10월 29일(일) 오후 1시 (성당, 대부모와 함께)  
 • 견진 미사: 10월 30일(월) 오후 7:30 (성당)

**16 CYO LOCK IN**

• 일시: 11월 3일(금) 오후 6:30 - 11월 4일(토) 오전 9시  
 • 장소: 성당 친교실  
 • 문의: 이희준 아오스딩(703)627-0799

**17 성물부 세일 안내**

• 목주기도 성물을 맞이하여 20% 정기세일을 합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2017년 (33일 봉헌 기도) 접수**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는 33일 동안 단계적으로 자신을 알기,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로 정해진 기도와 묵상 그리고 생활 실천을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 접수 기간: 10월 8일(일) - 10월 29일(일)  
 • 기도 시작: 11월 5일(일) / 봉헌식: 12월 8일(금)  
 • 문의: 김지윤 그라시아 (571)243-5054, 이기열 콜베 (703)625-1578  
 • 주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9 하상 후보 광고비 납부**

• 하상 후보 광고주 여러분들은 광고비를 결산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27주간: 신명 17-22장/ 마르코 15장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19일(목) 오후 5:00-6:00  
 10월 20일(금) 오후 8:00-9:00  
 10월 22일(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가톨릭 리더를 만나다: 우리 시대 가톨릭 리더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랑의 맛이 담긴 성심당 빵집 임영진 · 김미진 부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0월 8일 (연중 제27주일)

주일헌금	\$ 7,482.00
교무금	\$ 9,90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5,07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헌금	\$ 0.00
<b>합계</b>	<b>\$ 22,552.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일반: 노동자와 실업자**  
 모든 노동자가 자기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받고, 실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 고상균(스페타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냐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희순(세실리아)

- ♥ **군복무자**
-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 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메디케어</b>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피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한중희 토마스</b> 공인 회계사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SBA 대출/상업대출</b>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피아노 레슨</b>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공인회계사(CPA)</b>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b>Kwon's Champion School</b> 종합무술 (Before /After/Evening) 703-785-3845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호영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